

**시민환경의식 제고 방안\***  
**-울산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준금  
행정학과

**<요약>**

시민환경의식 수준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필요한 환경단체나 환경운동가의 활동기반이 되는 동시에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전제로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이끌어 가는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들의 환경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으며, 현행 울산시의 환경홍보 또는 환경정보 제공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바람직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행정과정에의 시민참여의 증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Propositions for Promoting the Citizen's  
Environmental Perceptions  
in Ulsan Metropolitan City**

Jung, Joon-Keum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이 연구는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abstract>

The level of the citizen's though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not only the base of the activities of environmental groups or the environmentalists, but also the premise of the general participations of citizens on the environmental policy processes. In other words, it leads the environmental policies. This study tries to suggest some policy propositions for improving the citizen's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policy suggestions are composed of the openness of environmental informations and the increment of citizen's participations on environmental policy processes.

## 1. 서 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에 시민들의 높은 환경보전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환경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특징으로서 이른바 기업가정치적인(entrepreneurial politics) 속성 때문이다.(Wilson, 1980) 즉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수단인 환경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는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의 배분에 있어서, 비용은 피규제자인 오염물질 유발집단이 집중적으로 부담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보전이라는 편익은 국민 전체가 분산적으로 누리게 된다. 이 때 환경규제의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피규제집단은 조직화된 힘으로 규제에 대항하는 반면, 편익을 누리는 일반시민들은 1인당 느끼는 편익의 크기가 작고 이질적인 다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직적인 집합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환경정책과정에서 환경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피규제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환경정책이 제대로 결정·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피규제집단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단체나 환경운동가들의 기업가적인 선도적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가정치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의 기업가적인 활동의 잠재적인 지지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의식이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일반시민들의 환경의식의 성장은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의 기반이 되며 결국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은 정책과정에서 환경규제 반대자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된다.

둘째,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은 시민들의 환경정책과정에의 참여를 촉진하여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환경정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행정관료들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공직유지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평가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그들의 행동준거를 상급자나 내부감사·평가기관의 요구에 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관료들로 하여금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시민들의 요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책상의 오류나 편견을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시민참여는 정책대안에 대한 다수의 토론과 검토를 가능하게 하므로 관료의 독단적인 결정에 비해 정책의 전문성이 향상되며,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참여시민들의 협조와 순응을 확보하여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의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환경행정에의 시민참여는 지방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강화를 위해서 더욱 더 필요하며, 이것 역시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이후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면서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요구투입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것이 분명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역개발과 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요구하는 참여도 대폭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요구투입이 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를 보면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가 보다 조직적이고, 또 지방정부 내부에서도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발부서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보전 요구보다는 지역개발 요구가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정준금, 1996) 따라서 이러한 참여와 정책전환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자치단체의 정책지향을 환경보전적인 것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요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환경을 무시한 지역개발을 자제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넷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오염물질 배출의 상당부분이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려는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며 결국 생활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환경의식으로 무장된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생활과정에서 목격되는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그대로 용납하지 않는 오염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 결과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수준이 향상될수록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적발 가능성성이 높아져 정부의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은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환경단체나 환경운동가의 활동기반이 되는 동시에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전제로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이끌어 가는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환경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울산시의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정책도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컨대 울산시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의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울산시 정책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려는 것이 첫 번째 연구목적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울산시민들이 울산의 환경오염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울산시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화학 공업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울산시민 스스로도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염도시라고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울산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판단을 근거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울산은 공업도시니까 당연히 오염도가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나 아니면 울산지역 오염에 대한 피상적인 언론보도 또는 울산지역에서 간혹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울산의 환경오염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울산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선 시민들의 환경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으며, 현행 울산시의 환경홍보 또는 환경정보 제공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바람직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론적인 검토와 설문조사 및 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환경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정한 사회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형성은 단기간의 홍보의 산물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식의 누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환경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인 ‘환경의식’은 객관적인 환경상태와 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형성되는 것인 만큼 다음과 같은 여려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첫째, 물리적인 환경상태로서, 현재의 환경오염정도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정준금외, 1999) 환경이 오염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체감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환경의식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환경문제는 환경오염 상태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가시성(visibility)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환경문제가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오염상태가 어느 수준은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느끼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환경의식은 ‘객관적인’ 환경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환경오염 상태가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환경의식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환경의식의 형성에는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또는 이해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식형성은 일정한 사회현상을 문제 있는 것으로 볼 때 형성되는데, 어떠한 현상을 문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개인의 인지된 이상상태와 객관적인 문제상태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인지된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Dunn, 1981) 그러므로 현재의 객관적인 문제상태는 동일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 이해관계 등에 따라 인지된 이상상태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사람에 따라 동일한 현상을 큰 문제로 보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환경의식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환경이 오염되었어도 사람에 따라서는 산업발전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사소한 환경오염도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심각한 도전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 환경의식에는 개인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그런데 한 개인의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은 사회전체의 가치의식 또는 가치체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물론 개인들의 인식의 변화의 합이 사회적 가치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거꾸로 사회적 가치의식의 변화는 개인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하면, 이전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사민 개인의

환경의식의 변화는 환경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도모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 이념(dominant ideology)이 환경문제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정준금외, 1999) 지배적 이념은 사회가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고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구성원을 포함한 전 사회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이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당연히 지배적 이념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지배적 이념이 환경보전을 강조하는 것이면 시민들의 가치관도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변하여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환경의식이 성장할 것이며, 반대로 지배적 이념이 환경보전보다는 경제발전이나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면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시민환경의식의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시민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상황과 환경오염사건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보전은 경제문제와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환경의식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사건은 가시성이 낮은 환경오염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그 극적인 효과로 인하여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시킨다. 울산의 경우 종종 발생하는 환경관련 사고 또는 사건들은 시민들의 환경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 형성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환경오염도의 절대적인 수치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교할 때 여전히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점은 울산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상황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환경상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건은 시민들의 의식 속에 울산은 환경오염이 심한 도시라는 인식을 각인 시키고 있다.

그러나 울산이 가지고 있는 공업도시로서의 특성은,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울산의 경우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지만 개발을 멈추거나 감소시키면서까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높은 경제적 수준, 많은 일자리와 같은 기존의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누리려는 욕구 또한 강하다고 할 수 있다.(정준금, 1995) 울산은 산업기반이 확보된 공업도시로서 지역 내 경제성장이 경제하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경제 또는 지역개발은 여전히 울산시민들의 주된 관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논의한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작용하여 울산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기로 한다.

### 3. 울산시민의 환경의식

울산시민의 환경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sup>2)</sup>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울산시민의 환경의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만족도

우선 울산시민의 체감 환경수준은 환경관련 모든 부분에서 불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울산시 환경전반에 관해 61.1%의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기·악취와 음용수 수질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만족도를 매우 만족 2점, 만족 1점, 만족도 불만도 아님 0점, 불만 -1점, 매우 불만 -2점으로 환산하여 울산시민들의 환경수준 만족도를 계산한 <표2>에도 시민들은 울산지역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전반에 대해서는 -0.73, 대기·악취 -0.50 등으로 시민들의 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행인 것은 1999년에 비해 2000년의 환경만족도가 전 부문에 걸쳐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1> 울산지역의 부문별 환경수준에 관한 시민만족도

단위: 가구 (%)

구 분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대기악취	124 (14.7)	317 (37.6)	284 (33.6)	97 (11.5)	22 (2.6)	844
하수도악취	122 (14.5)	282 (33.4)	317 (37.6)	92 (10.9)	31 (3.7)	844
소음·진동	147 (17.5)	256 (30.4)	325 (38.6)	91 (10.8)	23 (2.7)	842
비산먼지	104 (12.4)	257 (30.5)	364 (43.2)	98 (11.6)	19 (2.3)	842
대기전반	108 (12.8)	312 (37.1)	302 (35.9)	98 (11.7)	21 (2.5)	841
음용수수질	116 (13.8)	298 (35.5)	297 (35.4)	94 (11.2)	35 (4.2)	840
해안연변환경	108 (13.3)	258 (31.9)	337 (41.7)	92 (11.4)	14 (1.7)	809
강변환경	121 (14.8)	244 (29.9)	352 (43.2)	85 (10.4)	13 (1.6)	815
도시녹화	89 (10.6)	238 (28.3)	365 (43.3)	129 (15.3)	21 (2.5)	842
쓰레기처리	115 (13.7)	296 (35.2)	312 (37.1)	101 (12.0)	18 (2.1)	842
환경전반	154 (18.3)	361 (42.8)	284 (33.7)	38 (4.5)	6 (0.7)	843

- 2) 설문조사는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두 번 시행하였는데, 1999년도는 울산시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00년도는 87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중 울산시민의 환경의식과 관련된 것들을 발췌하여 연도 구분 없이 소개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시점과 대상이 다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시민의 환경의식 수준을 엄격히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대체로 어떠한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전반적인 환경의식의 경향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1999 및 2000)를 참조할 것.

&lt;표2&gt; 울산시민들의 환경수준 만족도 지표

구 분	1999년	2000년
대기악취	-1.01 (0.843)	-0.50 (0.965)
하수도악취	-0.88 (0.901)	-0.44 (0.987)
소음·진동	-0.79 (0.903)	-0.49 (0.990)
비산먼지	-0.78 (0.918)	-0.39 (0.924)
대기전반	-0.86 (0.854)	-0.46 (0.943)
음용수수질	-0.91 (0.938)	-0.44 (0.999)
해안연변환경	-0.69 (0.948)	-0.44 (0.919)
강변환경	-0.74 (1.006)	-0.46 (0.922)
도시녹화	-0.60 (1.012)	-0.29 (0.935)
쓰레기처리	-0.62 (1.045)	-0.46 (0.944)
환경전반	-1.00 (0.781)	-0.73 (0.833)

환경부와 울산시의 발표에 의하면 울산지역의 대기오염도는 96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태화강을 비롯한 하천수질도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들의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환경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울산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울산시민들은 현재의 환경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높은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울산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2)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

울산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알려주는 설문조사 결과는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정도, 농약과 원자력발전에 관한 의식, 환경에 대한 가치관 등에 관한 것이다. 먼저 환경보도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늘 관심 있게 본다'가 37.6%, '대충 보는 편이다' 52.3%로 약 90% 정도가 환경보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울산시민들은 언론보도 중 환경과 관련된 것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약에 대해서는 '내가 먹는 채소는 농약 때문에 불안하다'는 지표에 대해 매우 불안 2점, 불안 1점, 안심 -1점, 매우 안심 -2점을 주어 계산한 결과 평균 0.96점으로 불안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원전은 오염발생이 없는 깨끗한 전력생산방식이다'라는 지표에 대해 매우 찬성 2점, 찬성 1점, 반대 -1점, 매우 반대 -2점을 주어 계산한 결과 평균 -0.59점으로서 회의적인 응답이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이 울산시민들은 식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채소에 대해서도 농약오염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원전에 대해서도 오염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울산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관리주의, 생태주의,

환경정의론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환경관리주의에 관해서는 '기술이 발달하면 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지표로, 생태주의에 관해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을 늦출 수 있다'는 지표로, 국내적 환경정의론은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보다 환경피해를 많이 본다'는 지표로, 국제적 환경정의론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진국이 후진국을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지표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매우 찬성 2점, 찬성 1점, 반대 -1점, 매우 반대 -2점을 주어 계산한 결과 울산시민들은 환경정의적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울산시민의 환경에 대한 가치관

환경가치관	환경관리주의	생태주의	국내적 환경정의론	국제적 환경정의론
지표	기술이 발달하면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을 늦출 수 있다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보다 환경오염으로 더 피해를 본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주어야 한다
점수	0.1828	0.5395	0.8852	1.0180

한편 울산시민들은 환경문제의 해결이 기술로 가능하다는 환경관리주의 보다는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생태주의적인 환경가치관을 보임으로써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 울산시민의 높은 환경의식을 나타내 주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환경행동

울산시민들은 이처럼 환경관심도가 높고, 생태주의적·환경정의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환경의식에 비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및 활동수준, 즉 환경행동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 가운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비율은 12% 남짓에 그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러한 모임에 관여해 본 경험이 없다. 이것은 울산시민의 높은 환경의식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참여와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쳐 짧은 춤의 환경행동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환경운동에 대한 참여의지는 현재 수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보수로 환경감시에 나설 의향을 묻는 설문에 47.3%가 있다고, 52.8%는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앞으로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할 시민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앞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창당될 경우 어느 정도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76.6%가 넘는 비율로 지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정당구조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적어도 울산지역의 경우 서구의 녹색당과 같은 환경정당의 지지기반이 마련되어 감을 시사하고 있다.

재활용품 구입경험에 대해서는 가끔이라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68% 정도로서 환경모임에 대한 참여도 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다. 즉 울산시민은 환경문제의 정치적·사회적 해결을 위한 행동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일상행동에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조금 비싸더라도 무공해 농산물을 구입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64.3%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인 95%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매우 적극적인 환경행동을 보여 주고 있다. 요컨대 울산시민들은 재활용품 구입, 쓰레기 분리수거, 무공해 농산물 구입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적극적인 친환경적 행동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울산시민의 환경의식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환경행동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울산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환경관리주의 보다는 환경정의론에 좀더 가까운 환경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사회적인 모임에는 참여도가 낮은 편이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및 무공해 농산물 구입과 같은 일상적인 환경행동은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무보수 환경감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에 대한 지지와 같은 앞으로의 환경운동에 대한 참여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시민환경의식 제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울산시는 그 동안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환경행정의 시민요구 반영 정도

울산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시가 발표하는 환경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의 기반이 된다. 특히 울산시민들이 울산시 환경행정의 시민요구 반영정도가 높고 환경행정 능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한다면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울산시민들은 울산시의 환경행정에 시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환경행정에 있어서 시민요구 반영정도

구분	빈도	%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	11	1.3
약간 반영되고 있다	351	40.5
반영 되지 않고 있다	387	44.6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118	13.6
계	867	100.0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40.5%의 시민들은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답하였지만,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58.2%에 달하고 있다.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높지만 전년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즉 1999년도 조사에서는 시민요구가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33.1%, 반영되지 않는다가 66.3%로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반 수 이상의 시민들이 울산시 환경행정이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울산시는 환경행정에 시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울산시의 환경관리 능력

또한 울산시민들은 울산시의 환경관리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3.0%의 시민들이 환경관리 능력이 미흡하다고 답하였으며, 매우 미흡하다고 응답한 시민도 16.1%에 달하였다. 이에 비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1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시가 환경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울산시 환경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하는 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표5> 울산시 환경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
매우 충분하다	4	0.5
충분한 편이다	91	10.5
미흡한 편이다	632	73.0
매우 미흡하다	139	16.1
계	866	100.0

## (3) 울산시 제공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울산시가 공개한 환경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믿지 못하는 응답자가 62.9%이고, 신뢰하는 응답자는 24.1%로서 상당수의 시민들은 울산시가 환경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발표하는 환경정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울산시가 공개한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정도

구분	빈도	%
대단히 신뢰한다	2	0.2
신뢰하는 편이다	209	23.9
믿지 못하겠다	472	53.9
절대 믿지 못하겠다	79	9.0
모르겠다	113	12.9
계	875	100.0

울산시는 매년 객관적인 환경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수치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환경오염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개선발표에 대해 시민들은 큰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이 울산시의 환경행정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울산시 환경행정 능력으로는 환경상태의 개선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또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과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환경간에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다. 즉 실제의 환경수준은 시의 발표대로 개선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시는 환경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환경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시가 제공하는 환경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 (4)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개선 정도

울산시민들은 울산시의 환경행정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시가 발표하는 환경개선 수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환경개선 정도는 시의 발표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7>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개선 정도

구분	빈도	%
환경이 아주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낌	13	1.5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낌	272	31.1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낌	349	39.9
환경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다고 느낌	45	5.1
모름	196	22.4
계	875	100.0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은 32.6%인데 비해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들은 45.0%로 시의 발표와는 달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울산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시민도 22.4%에 달해 실제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시적인 환경문제의 속성상 시민들이 이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어느 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5) 환경오염 정도 인지도

그렇다면 울산시민들은 울산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울산시민들은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해 대강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8.7%의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염정도를 대강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1%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40.5%의 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7.7%의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반수 정도의 시민들이 환경오염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8&gt; 환경오염정도 인지도

구분	빈도	%
아주 잘 안다	27	3.1
대강 안다	424	48.7
잘 모른다	353	40.5
전혀 모른다	67	7.7
계	871	100.0

이러한 조사결과는 시민환경의식 제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많은 시민들이 울산의 환경문제 또는 환경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평가의 상당 부분이 울산의 환경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환경의식 형성에 지역의 오염정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바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업도시 울산에 대한 이미지나 환경오염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된 '공해도시 울산'이라는 고정관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울산시는 환경오염정보 자체가 시민들의 환경의식 형성과 환경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울산지역의 객관적인 환경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6) 환경정보의 공개정도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환경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울산시가 지역의 환경오염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5.4%의 응답자들이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하였으며, 6.3%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lt;표9&gt; 울산시의 환경정도 공개 정도

구분	빈도	%
아주 많이 공개하고 있다	7	0.8
공개하는 편이다	182	20.8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484	55.4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55	6.3
모른겠다	145	16.6
계	873	100.0

울산시와 시민들 간에 울산의 환경상태를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는 이와 같은 환경정보의 공개정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는 자신들이 보유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울산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울산지역의 환경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특히 시민들은 울산시에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

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의 환경개선 발표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다.

### (7) 환경오염정보에 대한 관심도

울산시민들은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를 알려주는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도

구분	빈도	%
매우 많다	72	8.2
많은 편이다	396	45.3
없는 편이다	283	32.3
매우 없다	18	2.1
모르겠다	106	12.1
계	875	100.0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의 53.5% 정도가 환경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반수정도의 시민들만 환경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지역의 최대 이슈의 하나가 환경문제이고 시민들의 환경의식 또한 비교적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시민들이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환경정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환경관련 사고기사 등을 통해 울산의 환경상태를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것이 누적되어서 '울산은 환경오염 도시'라는 울산의 환경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울산시는 시민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울산의 환경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8) 환경정보 입수 경로

한편 울산시민의 대다수는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방송, 신문과 같은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텔레비전과 라디오 같은 방송매체(66.7%)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수단도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시홍보물이나 인터넷은 시민들에게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경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lt;표11&gt; 환경오염정보 입수 경로

구분	빈도	%
울산시 홍보물	28	3.2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584	66.7
신문, 잡지 등 문자매체	147	16.8
인터넷	17	1.9
주위사람들	77	8.8
기타	22	2.5
계	875	100.0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많아 환경정보를 접하고 있는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의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경향을 보면 대체로 환경오염사건에 대한 사실보도나 환경파괴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도성향은 언론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며 시민들의 환경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울산시의 환경정책의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환경의식의 형성이 객관적인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울산의 환경상태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기도 어렵고, 이를 알리기 위한 시의 홍보물은 시민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결국 시민들은 울산의 환경상태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따라 울산의 환경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 (9) 환경의식 제고에 미치는 영향

울산시민들은 언론기관과 환경단체가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울산시 행정기관과 환경단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12&gt; 시민 환경의식 제고에 미치는 영향(%)

구분	언론 기관	울산시 구·군	환경단체	학교	기업	문화 예술계	인터넷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42.8	13.2	31.3	12.8	7.2	4.9	13.9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	48.8	52.2	55.4	42.6	31.4	25.9	38.3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9	27.8	9.8	29.8	36.7	36.1	20.6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7	3.8	0.8	6.8	16.6	17.9	8.2
모르겠다	2.2	3.0	2.6	8.0	8.1	15.2	1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방송·신문과 같은 언론기관은 울산시민들이 환경정보를 접하는 주된 통로이므로 시민들의 환경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기관의 환경관련 보도는 대체로 울산의 환경상황에 대한 비판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민들은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되는 울산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함으로써 환경의식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환경단체의 활동도 울산의 환경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행정당국의 환경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기관과 마찬가지이다. 이를테면 이들은 주로 네거티브한 접근방법(negative approach)을 사용하여 시민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행정기관에서는 울산환경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이나 아니면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환경개선 실적으로 통해 시민들에게 울산시 행정기관이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시민환경의식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 언론기관과 환경단체와는 달리 긍정적인 접근방법 (positive approach)을 사용하는 것이다. 학교의 경우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이의 실천을 통해서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 울산시민들은 네거티브한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언론기관과 환경단체의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시민들은 울산시 환경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언론과 환경단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의식은 울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민환경의식 형성에 있어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시민환경의식의 제고가 결국은 자신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문화예술계도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환경의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터넷이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 환경정보공개의 적절한 방법

시민환경의식 제고에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는 정확한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울산시민들은 환경정보 공개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언론기관을 통한 공개를 들고 있다. 즉 61.3%의 시민들이 언론기관을 통한 정보공개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9.3%의 시민들이 환경단체를 통한 공개, 8.6%의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한 환경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행정기관이 소책자와 같은 자체 홍보물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4.1%의 시민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시가 직접 자신의 홍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적절한 환경정보 공개 방법

구분	빈도	%
언론기관	536	61.3
인터넷	75	8.6
학교교육	51	5.8
환경단체 활동	169	19.3
행정 출판물	36	4.1
기타	7	0.8
계	874	100.0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 동안 시민들이 언론과 환경단체의 환경보도를 통해 울산의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또 이 과정에서 환경의식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행정기관의 자체 출판물에 의한 공개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감이 낮게 나타난 조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시의 홍보활동의 초점이 자체적인 홍보물 제작방법 보다는 언론과 환경단체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8.6%의 시민들이 적절한 것으로 답함으로써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1)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울산시민들은 언론기관의 환경관련보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의 홍보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14>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구분	빈도	%
인터넷을 통한 환경오염정보의 공개	79	9.1
언론기관의 환경관련 보도의 증가	328	37.6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178	20.4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정책의 시행	235	26.9
학교환경교육의 강화	42	4.8
기타	10	1.1
계	875	100.0

이 설문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시민의 환경의식은 언론과 환경단체의 활동에 의해서 제고되고 강화될 수 있겠지만 이 자체로서 울산환경의 변화가 도모되는 것은 아니다. 울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은 울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정책의 시행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시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울산시민의 환경의식은 비로소 울산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12) 설문조사 결과 논의

첫째, 울산시민들은 울산시의 환경행정에 시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시의 환경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울산시민들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시가 환경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울산시 환경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하는 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울산시는 객관적인 환경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

나 시민들은 이에 대해 큰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이 울산시의 환경행정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시민들의 체감환경과 기대환경 수준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울산의 환경개선 정도는 시의 발표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울산시민들의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 환경의식의 형성이 환경오염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성된 ‘공해도시 울산’이라는 고정관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넷째,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환경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울산시가 지역의 환경오염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울산시민들은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를 알려주는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환경관련 사고기사 등을 통해 울산의 환경상태를 펴상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것이 누적되어서 ‘울산은 환경오염 도시’라는 울산의 환경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울산시민의 대다수는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방송, 신문과 같은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텔레비전과 라디오 같은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시·홍보물이나 인터넷은 시민들에게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울산시민들은 언론기관과 환경단체가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울산시 행정기관과 환경단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민환경의식 형성에 있어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울산시민들은 환경정보 공개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언론기관을 통한 공개를 들고 있다. 또한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언론기관의 환경관련보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환경단체의 홍보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바, 울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정책의 시행으로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이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때 울산시민의 환경의식은 비로소 울산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앞에서 분석·제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선택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행정기관이 울산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긍정적인 접근방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즉 울산환경의 개선정도에 대한 자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체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뢰도도 높지 않고 행정기관

의 환경개선 능력을 불신하고 있으므로 큰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울산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환경투자를 늘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환경개선 정도를 체감하고 울산시의 환경행정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가 제공하는 환경정보의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면 울산시민의 환경의식은 울산의 환경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그 동안 울산환경에 대한 부정적 또는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온 언론과 환경단체로 하여금 울산환경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보도나 환경단체의 활동에서 울산시 행정당국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실제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기관의 관할밖에 있는 독립된 기관들이므로 언론의 보도주제 설정이나 환경단체의 활동전략 선택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권력이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이다. 따라서 결국 행정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의 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울산 환경상태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울산시의 현재의 객관적인 환경상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홍보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환경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환경의식 무엇보다 울산시의 현재의 환경오염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에 의해 형성되므로 현재의 오염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오염 사건 발생빈도의 축소, 환경교육의 강화, 환경행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 당국의 공개적인 의지표명 등 여러 가지 전략의 복합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단기적인 방안 중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행정에의 시민참여의 증대를 중심으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환경정보의 공개

울산시민 환경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환경행동 간에는 괴리가 있다. 환경보전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정작 이의 실천을 위한 참여의 정도는 낮은 것이다. 이는 환경보전 행동의 실천결과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의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으로 느끼는 환경개선의 효과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무임승차를 하려는 동기를 갖게된다. 이 때 일반시민들의 환경보전을 의식을 제고시키고 적극적인 환경보전의 실천자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의 환경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현재 어느 수준의 환경오염에 의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이 개선될 경우 얼마만큼의 편익을 얻게되는지 정확히 알려주게 되면, 시민들은 자신의 환경행동의 효과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환경보전의식의 제고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환경정보의 공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환경행정과 시민들의 공동노력을 유

발하고, 울산시가 제시하는 환경개선 효과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일치시키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울산시 행정기관에서 울산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지만,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환경관련 정보를 장악하고 이를 쉽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보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관련 정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울산시의 환경정보 공개는 환경정보교환센터, 대기환경수준전광판,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울산시, 1999) 환경정보교환센터는 울산시 환경정책과에 비치된 환경과 관련된 각종의 자료집, 단행본, 행정자료 등을 울산시민들이 대출 또는 복사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의 양은 약 300여 종이며, 연간 약 5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대기환경수준전광판은 울산지역의 대기환경수준 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내 3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전광판을 통해 표출되는 오염물질 항목은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5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공개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고, 또 울산의 환경상태와 시민들의 인식을 일치시키는 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정보교환센터는 말이 센터이지 환경정책과 사무실 한 쪽에 있는 서가에 모아 놓은 자료가 꽂혀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련 자료를 버리지 않고 비치함으로써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대기환경수준 전광판도 넓은 시내에 단 3곳만 설치되어 있어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를 쳐다보고 울산의 대기환경수준을 정확한 인식하는 동시에 환경보전 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환경정보도 이미 발간된 울산시 환경백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따라서 울산시는 시민들이 정확한 환경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환경오염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자연생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분야 별로 오염원 및 각 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여 지역별, 수계별, 생태계별 등 다양한 경로로 분석이 가능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중에서 시민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물질을 지정하여 이들 오염물질의 배출되는 양,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을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고 이 데이터를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정보제공시스템으로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 TRI(Toxic Realease Inventory)<sup>3)</sup>

이 제도가 미국에 등장한 것은 1984년 인도의 보팔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한다. 이 사건 이후 노동자나 지역주민들에게 유독성 화학물질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반

3) <http://www.epa.gov/tri/>

영하여 미국에서는 1986년 알권리법(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Toxics Release Inventory(TRI)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유독물질 관리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보다 확실히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의 유독물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시설은 10인 이상의 고용원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약 600개의 지정된 화학물질을 25,000파운드 이상 제조 또는 처리하는 기업이다. 1999년 현재 약 20,000개 이상의 배출업소에서 80,000건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환경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TRI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내용은 일정기간 지역사회에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배출되는 양,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관리상태 등이다. 중화학산업에 종사하는 공장의 숫자가 많고 종종 유독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울산의 현실에서 TRI 제도와 같은 온라인 정보제공시스템의 도입되면,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는 물론이고 오염물질의 감소효과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3) AIR NOW와 EMPACT

AIR NOW는 미국의 EP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대기환경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sup>4)</sup> 이 웹사이트는 대기오염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작적으로 제공하며, 단순한 오염정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이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이 사이트는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 및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EPA에서는 EMPACT(Environmental Monitoring for Public Access & Community Tracking)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신의 환경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sup>5)</sup>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우리 지역의 오존양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우리 동네 하천의 수질은 어느 수준인가, 오늘 우리 시의 자외선 양은 어느 정도인가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정에서 시민들이 자기 주변의 환경상태에 대해 궁금해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민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환경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4) 환경정보 공개 매체의 다양화

설문조사 결과 울산시민들은 언론매체를 통한 환경정보의 공개가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울산시도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 방송국과 신문의 협조를 얻어 울산의 환경상태에 대한 실시간 또는 누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4) <http://www.epa.gov/airnow/>

5) <http://www.epa.gov/empact/>

나, 울산의 환경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다큐멘터리 식의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공식·비공식 회의, 반상회보, 관계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울산의 환경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도 시민환경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2) 환경행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행정참여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수단, 정책의 전문성 제고, 정책의 효과성 실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시민참여가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환경정책의 효과가 개인이나 집단의 실천을 통해 구현될 수 있으며, 환경정책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인식이 환경보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또 이것이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형태로 나타나면 시민환경의식 제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는 시민들을 직접 환경정책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참여한 정책에의 순응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이는 결국 시의 환경정책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현재 울산시의 환경행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정준금, 2000) 첫째, 울산시 환경위원회로서,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제28조에 규정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환경위원회는 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 언론기관, 학계, 공공기관, 시민, 시민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울산시의 ‘지방의제 21’인 ‘푸른울산 21’을 추진하기 위한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여기에 시민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셋째, 울산시는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역 내에 위치한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128개 사업장과 낙동강환경관리청과 공동으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2000년 4월 19일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참여한 128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시민, 민간단체, 기업,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개선시설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획이다. 넷째, 시민들을 환경오염 감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소각, 무단 폐수방류, 자동차 매연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울산시는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단체에 사업별로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도 지원금액은 8개 단체에 5,830만원이다. 여섯째, 울산시는 태화강의 생태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해 이 지역에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의 명물인 대숲보전을 위해 대숲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태화강 생태계 보전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울산시는 ‘대숲땅 한평사기’ 국민신탁(national trust) 운동을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울산시 환경행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참여가 형식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울산시 환경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환경관련 순수 시민단체의 대표들보다는 공공기관과 주부단체대표

들로 구성하여 환경정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시민참여의 의의를 살리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울산시는 5년과 10년 단위로 각각 중기와 장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때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환경기본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울산시환경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견 반영조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그야말로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 문제이다. 시민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시민의 대표로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 때 시민대표의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우선 손쉬운 대로 그 동안의 정책과정에서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지역언론, 관변단체나 '지역유지' 중심으로 시민대표를 구성하려고 하게 된다. 이들도 물론 나름대로는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그야말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위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지역의 환경관리가 울산시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울산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크게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켜서 시민환경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울산시의 환경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민참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1) 환경관련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확대

<표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행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표15> 환경행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영역

활동유형	내용
제안	환경관련 행정제도개선에 대한 주민발의, 민원제기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자문	환경시민위원회, 자문위원회, 공해감시위원회 등을 통한 참여
위임	환경감시, 오염단속, 교육 등을民間단체에 위임
지도·교육·홍보	자치단체가 주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에 참여
분쟁	환경관련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참여
자발적 운동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생적 운동에 참여

자료: 녹색서울시민위원회(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은 관변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의 참여는 허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데에는 인색한 편이다. 앞으로는 전문가나 명망가 위주의 선별적 참여가 아니고 다양한 일반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경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참여의 제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 2)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상제

각종 환경오염활동에 대한 주민의 환경감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상제를 도입한다. 우선 폐수의 무단방류, 폐기물의 불법투기, 대기오염물질의 과다배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 불법적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고발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함께 공동 단속활동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과금, 부과금의 일정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시민고발포상제도를 마련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고발한 주민은 법규위반이 유죄로 판명되면 부과된 벌과금의 25%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욕주도 유해물질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여 유죄판결로 이끈 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였다. EPA도 Superfund Citizen Award Provision을 통하여 성공적인 형사소송을 이끌어 내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0,0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제고하듯이 환경오염감시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시민환경의식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3) 주민환경감사 청구제도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환경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시민환경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환경행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역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감사를 청구하고 이를 통해 환경행정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 이는 지역의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부천시에서 1997년도에 도입·시행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환경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1996),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연구사업.
- 울산시(1999), 환경백서
-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1999 및 2000), 시민환경의식 조사 및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방안연구
- 정준금(1995), “공업도시의 환경사회정책,” *환경과 사회*, 6
- 정준금(1996),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의 환경정책 변화 분석,” *사회과학논집*, 8-2
- 정준금외(1999), *환경과 사회, 대영문화사*
- 정준금(2000), “울산시 환경행정에의 시민참여,”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 조명래(1996),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NGO활동을 중심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 Bryant (1995), *Environmental Justic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llan, S. & Thomas, J. M. (1996),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Theory and Applications*, Chicago, IL: Irwin.
- Dunn, William N. (1981), *An 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Fiorino, D.J. (1995), *Making Environmental Poli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amman, J.K. (1994), *Overcoming Obstacles in Environmental Policymaking*, Albany, N.Y.: SUNY Press
- Lesser, J.A., Dodds, D.E. & Zerbe, R.O. (1997),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Reading, MA: Addison-Wesley
- Wilson, James Q. (1980), *The Politics of Regulation*, New York: Basic Books.
- [www.epa.gov/airnow/](http://www.epa.gov/airnow/)
- [www.epa.gov/empact/](http://www.epa.gov/empact/)
- [www.epa.gov/tri/](http://www.epa.gov/tri/)